

사랑하고 보고 싶은 귀한 동역자님들께

지난 한 해도 사랑과 기도로 섬겨주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9년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동역자님들과 가정, 사역지 가운데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2018년 마케레레 UBF 역사 보고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2018년 우간다 마케레레 UBF 보고

요절: 마태복음 14장 17, 18절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하나님께서서는 2018년 요절로 마태복음 14장 17,18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모든 리더들이 아주 바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몇 명의 리더들은 자주 외국 출장을 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리더는 자정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많은 리더들이 바빠서 화요일 리더 성경 공부모임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몇몇 요회 목사님들은 각 요회 모임에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총 다섯 요회중에서 오직 한 두 요회만 요회 모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선교 병원도 양적으로 성장하여 모든 선교사님들이 좀 더 바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저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때 하나님은 마태복음 14장 17절 18절 말씀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각자가 오병이어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갖고 오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갖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저희의 오병이어를 주님께 들고 갔습니다.

첫째로, 다섯 분의 요회 목사님들은 주일 메시지 증거의 오병이어를 들고 갔습니다.

그들은 두 달에 한 번씩 충성스럽게 주일 메시지를 섬겼습니다.

가장 바쁜 시니어 리더중에 한명인 아브라함 목사님은 본인이 외국에 나가 있지 않은 동안 주일 메시지를 섬길 기회를 주라고 하고 섬겼습니다. 근 일 년간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1강부터 46강까지 성경 공부와 주일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아기로 오셨으며 사역하시는 동안 죄 문제를 비롯해 각종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섬기셨음을 배웠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요 참된 메시야 되신 예수님은 심판받아 마땅한 흉악한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하시고자 자신을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속의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죄와 사망권세를 이기는 최후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저희들에게 모든 나라에 가서 제자 삼으라는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과 구원의 왕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심을 깊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드린 마태복음 말씀공부와 주일 메시지의 오병이어를 받으사 넘치도록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참된 왕되신 주님께서 저희를 통치해주시도록 기도하였습니다.

둘째로, 젊은 리더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의 오병이어를 들고 갔습니다.

방학 중에 집에 가지 않고 남아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2개월간 특별 영적 훈련 프로그램을 가졌습니다. 모임은 1주일에 3번 가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죄, 구원에 대해서 배웠고 성경에서 구원 역사에 쓰임 받았던 모세, 바울, 다윗 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1주일에 한 번은 배운 것을 기초로 소감을 쓰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매주 선교사 가정과 요회 목자 가정에서 식사 교제 시간을 가졌습니다. 12명이 꾸준히 참석하여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9월 초 새학기에는 한 달동안 나인 스텝(초보자를 위한 성경 공부)을 기초로 성경 학교를 열었습니다. 주제는 기독교의 기본교리이었습니다. 매주 2번씩 있는 강의를 통해서 기독교의 기본 교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경 학교 이후에는 개별 요회 모임을 이루고자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요회 리더들은 여전히 매우 바빴고 실질적으로 각 요회 모임을 이루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두 달간 매주 목요일에 연합 요회를 가졌고 주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였습니다. 젊은 리더들이 요한 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7가지 기적을 기초로 한 메시지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들은 아직 영적으로 어렸지만 다윗 선교사님께서 그들을 훈련하였습니다.

학생회에서 사회와 찬양과 경배 프로그램을 섬기면서 영적 환경을 예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들 모두 역사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셋째로, 교회 건축을 위한 오병이어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캠퍼스 근처에 교회 건축을 위한 땅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 건축을 위한 큰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습니다. 요회 리더들과 몇 분의 선교사님들이 건축위원들입니다. 근 1년간 2주에 한번씩 건축을 위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건축을 위한 건축 헌금 약정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학생들 또한 교회 건축을 위한 약정카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약정액과 현재 교회 헌금액수를 합해도 저희의

예산의 1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교회 건축을 위한 가장 합당한 설계도를 완성한 후에 시청에 허가를 받기 위해서 제출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저희의 드린 오병이어를 받으사 축복하신 것에 대해 감사

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새해 방향을 주시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학개 1장 8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화려한 건축 자재를 쓰고 큰 성전을 짓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희가 나무를 가져오고 하나님의 집을 지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저희가 교회 건축을 준비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지으라는 분명한 방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짓는 것은 하나님께 돌이키는 길입니다. 그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마음 첫 자리에 두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저희가 저희 자신의 사사로운 일보다도 하나님을 마음 첫 자리에 두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건축을 온 마음을 다해 섬김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을 저희들 마음 첫 자리에 둘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한마디: 하나님의 전을 짓자

감사제목

1. 저희의 오병이어를 받으사 축복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 기도에 응답하셔서 3 가정 교회를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3. 교회 건축을 위한 강한 소원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심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4. 마태복음 말씀 공부와 주일 말씀을 축복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5. 스티븐 목자님을 미국에서 열린 2018년 국제 수양회 말씀 강사로 세워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도제목

- 1 하나님께 마음 첫 자리를 두며 교회 건축을 성공적으로 완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 한 캠퍼스와 한 나라(탄자니아)를 실질적으로 개척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 신실한 12 제자 양성역사를 이루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4. 3 가정교회 이루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5. 2019년 역사를 섬길 수 있는 합당한 프로그램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